

철강 (비중확대/Maintain)

미국 향 유정관 수출, 4분기부터 회복 전망

- 미국 향 유정관 수출, 쿼터 제한으로 5월부터 사실상 전무
- 쿼터 제한 해제 없어도 4분기부터는 다시 수출 가능
- 쿼터 제한 해제 가능성 높음. 강관사 실적 개선 기대

미국 향 유정관 수출, 쿼터 제한으로 5월부터 사실상 전무

2017년 월평균 7.7만톤이었던 미국 향 유정관 수출은 5월부터 사실상 전무인 상태다. 미국의 섹션 232조에 따른 관세 25%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받은 수출쿼터를 5월 이전에 전부 소진했기 때문이다. 이는 업계에서 당초 쿼터 적용 시점이 올해 5월부터 될 것으로 예상하고 4월까지 수출량을 최대한 늘린 상태였으나, 실제 쿼터 적용 시점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쿼터 제한 해제 없어도 4분기부터는 다시 수출 가능

미국의 품목제외 승인에 따른 수출 쿼터 제한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4분기부터는 다시 미국 향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수출 쿼터 계산이 미국 통관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2019년도의 유정관 수출 쿼터는 2019년 1월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물량부터 계산되는데, 한국에서 미국까지 운송기간이 약 3개월임을 감안하면 4분기부터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쿼터 제한 해제 가능성은 매우 높음

미국은 현재 섹션 232조 시행에 따라 모든 철강 제품 수입 시 25%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한국은 25% 관세 면제 대신 쿼터 적용) 이로 인한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이 수요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자 정부는 수요업체가 관세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이를 검토 후 제외해주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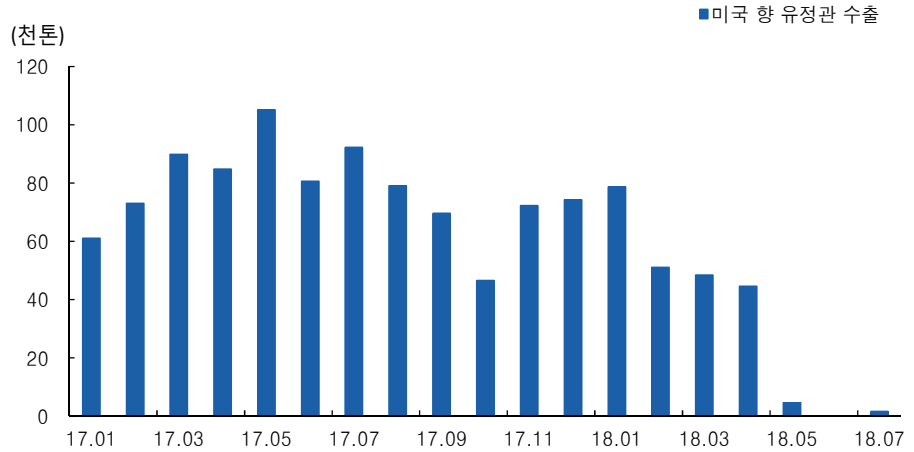
당시 한국처럼 이미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 쿼터 적용을 받는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였으나 지난 8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면제 국가도 품목제외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 쿼터 제한 해제가 가능해진 상태이다. (8/31, '미국 철강 수입 쿼터 완화' 참고)

우리는 한국산 유정관의 쿼터 제한 해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 내 원유 시추기 수 증가로 유정관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내 공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정관 가격은 연초대비 국산은 36%, 수입은 29% 상승한 상태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강관사 실적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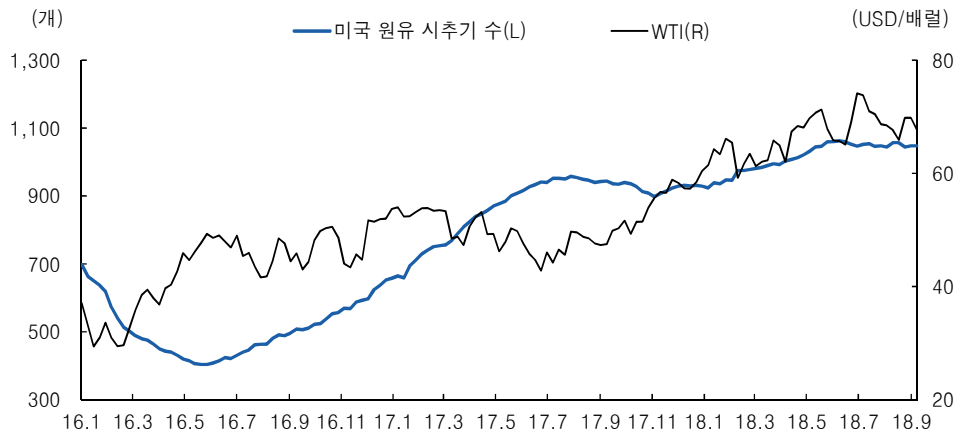
4분기부터 미국 향 유정관 수출이 회복되고, 추가적으로 쿼터 제한도 해제된다면 미국 향 유정관 수출이 많은 세아제강, 휴스틸 등 강관사들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미국 향 유정관 수출, 5월부터 전무하나 쿼터 제한 해제 없어도 4분기 회복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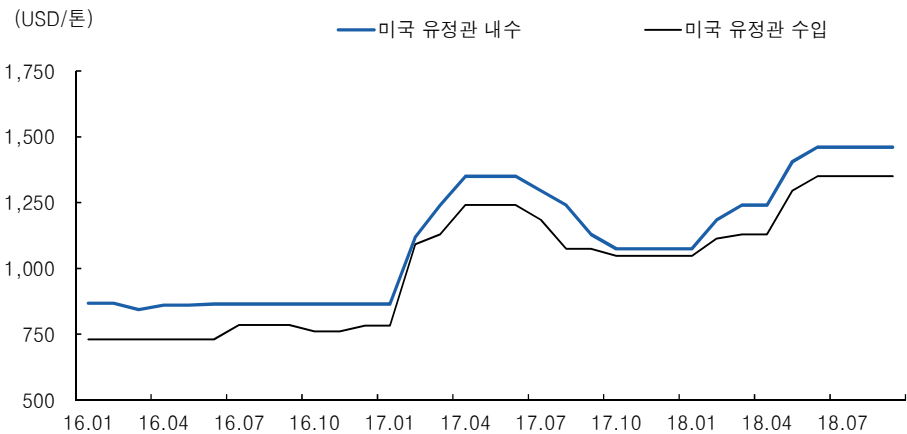
자료: 산업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유가 상승으로 미국 원유 시추기 수 증가



자료: 산업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3. 미국 유정관 공급 부족 및 관세 부과 영향으로 가격 급등



자료: 산업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철강

미국 향 유정관 수출, 4분기부터 회복 전망

투자 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비중축소(매도)
73.40%	14.78%	11.82%	0.00%

*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